

# 알바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김재설, 전미애, 김다니엘 기도편지

감사한 마음으로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인사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어색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자이시며 치료자되시는 주님의 주님되심이 더욱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병보다 더 놀랍게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 빈자리

조짜이 청소년 모임에서 소원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알디-자동차, 린다-미국, 클라우디아-그리스어, 아르디티-핸드폰, 크리스티나-공부, 자나-핸드폰, 레바-침, 소닐라-말씀배우기(자매는 문맹입니다), 아리나-주님섬기기' 그 후 에틀레바 전도사가 어머니 치료와 검사차 이탈리아로 한달 동안 언니집을 방문했습니다.

에틀레바 전도사가 없는 동안 어린이 모임을 맡으면서 긴긴 한달을 보냈습니다. 조짜이 마을에 다녀오면 이삼일은 진통을 겪는 제(전미애)가 통제불능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놀라고, 제 자신에게 놀라고. 레바 전도사님에게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면 레바전도사님 앞에서 순하던 양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돌변을 하는지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레바 전도사님을 옆에서만 돕던 저는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레바 전도사님이 병드신 어머니를 돌보면서 폐친 교회, 쉐즈 어린이 그리고 조짜이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잘 표현하지 않지만 참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 언니집에서 쉬고 또 언니와 어머니를 섬기면서 함께 예배한 감격들과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없는 동안 오셔서 도와주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넒딜레 어머니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시는데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빛아가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력을 지켜 주시고, 빛되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 비엔나 기도학교

비엔나 한인교회 장황영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섬김 그리고 GMP 알바니아 커넥션팀의 동역으로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배우고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김재설)는 알바니아어로 광고와 진행을 맡아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쉬지 않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계속 이 땅을 섬기기 원합니다.

\*커넥션팀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로 하셨던 박미경 선교사님이 4월초 회의차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건강검진 결과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두차례나 받으시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회복중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다오! 아리나!



"미야! 미야! 제가 일하는 슈퍼 주인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한다고 하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리나가 지난 주 모임에서 기쁜 목소리로 나누었습니다.

예쁜 옷 하나 사입고 싶은게 소원이었던 아리나!

만나고 돌아오면 일주일 내내 가슴을 아리게 했던 예쁘고 밝고 똑똑한 아리나!

2012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자주 밥을 굶는다고 친구 소닐라가 귀뜸해 주었습니다.

동생 아르디티는 5월에 저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로 몰래 걸어서 불법 입국해 일하고 있습니다.

5월말 아리나는 3개월 과정의 미용기술을 성실하게 잘 마쳤고, 동네에서 알음알음 한번에 천원씩 받고 동네 아주머니들 '컷트'와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용학원에서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미용학원 건물주인인 슈퍼 주인의 인정도 받으면서 매일 5

시간씩 슈퍼에서 점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손님중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리나가 똑똑한 아이인 것을 알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아리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리나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앞설까봐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해 왔는데 주님의 일하심에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잃어버린 드라마!

4월말 조짜이에서 산으로 모임을 하러 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전미애)를 위해 깊은 사랑을 담아 선물 해 주신 것인데도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잘 몰랐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주웠다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2주 쯤 뒤 다시 다니엘과 산책중에 귀한 분께 선물받은 아끼던 스카프를 잃어버렸습니다. 열린 뒤돌아서 다시 찾아 나섰지만 이미 누군가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가면서 '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마음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마의 비유였습니다.



그동안 전도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무뎠던 제 마음이 느껴졌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6월초 하나님께서는 김활영 선교사님 내외분과 김연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일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무슬림 전도를 향한 물꼬를 열어주고 가셨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고민했던 마음들이 해결되었고, 'ANY 3 전도법'과 '스토리 텔링 성경공부'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짜이에서 플로린다(13세)와 사두쉬(65세) 아저씨, 사비레 아주머니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가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있네!"

1년 동안 거의 매주 선포한 찬양입니다. 날마다 더욱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미애 선교사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지은 단기 선교사가 매주 조짜이에서 영어수업을 두 시간씩 진행하며 섬겨왔는데, 여름을 잘 보내고 내년 3월까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추가 기도제목들입니다.

1. 7월 모든 일정가운데 준비하는 자들과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 1) 7/1-7/9 GMP 커넥션 팀과 가나안 교회 협력사역 : 라치교회 캠프, 모라브 성경학교
- 2) 7/9-7/17 GMP 갈렘팀과 일산 길벗교회 단기팀 협력사역 : 어린이 및 청소년 캠프
- 3) 7/27-7/30 알바니아 한알학교 - 알바니아 코소보 MK 캠프

2. 다니엘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름방학 기간동안 잘 돌보고, 힘을 얻어 9월에 1학년을 맞이하도록

3. 여름동안 그동안 관계맺은 현지인 친구들을 방문 예정인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나누도록 (아니타, 아니에자 가정, 마리아나, 토니, 조짜이 마을 방문)

4. GMP 알바니아 대표 박미경 선교사님을 도와 부대표로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고통 심지어 어둠의 공격조차도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허용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이 가정과 교회에 날마다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김재설, 전미애 올림

## 연락처

메일: jcinseol@gmail.com  
070 전화: 070-7578-0940  
핸드폰: +355 69 601 7318(김재설)  
+355 69 601 7319(전미애)

## 후원안내

303-04-00002-083  
(외환은행: 한국해외선교회)  
처음 후원하시는 분이나 목적헌금을 하시는 분은 후원시 송금자명을 기록해 주시고 본부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02-337-7191)

이곳으로도 정기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go.MissionFund.org/jcinseol](http://go.MissionFund.org/jcinseol)